

‘쾌조의 스타트’ 이범호호 ‘상위권 발판’ 다진다

2~4일 KT전·5~7일 삼성전

지난주 4승 1패... 2위로 마쳐
양현종 주 2회 등판 결과 주목
크로우 연속 5실점 극복 과제
이우성·박찬호·김선빈 맹타

2024 KBO리그 순위		(1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승차
1	한화	8	7	1	0.875	-
2	KIA	6	5	1	0.833	1
3	NC	7	5	2	0.714	1.5
4	SSG	8	5	3	0.625	2
5	LG	8	4	3	0.571	2.5
6	두산	8	4	4	0.500	3
7	키움	6	2	4	0.333	4
8	삼성	8	2	5	0.286	4.5
9	롯데	7	1	6	0.143	5.5
10	KT	8	1	7	0.125	6

TIGERS 이범호 감독 체제로 새 출발해 3월을 5승 1패, 단독 2위로 마무리하며 우승을 향해 순항

하고 있는 KIA타이거즈가 4월 첫 주에도 상승세를 탈지 주목된다. KIA 선수단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KT위즈와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워닝 시리즈를 이어가며 상위권 발판 마련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KIA는 2일부터 KT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원정 주중 3연전, 5일부터 삼성과 홈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앞서 롯데에 2승, 두산에 2승 1패로 연속 워닝 시리즈를 챙긴 KIA는 올 시즌 5승 1패(승률 0.833)로 2위에 올라 있다.

시즌 초반 분위기를 착실하게 잡아가고 있는 KIA다. 특히 마운드의 위력이 막강



KIA타이거즈가 2일부터 KT위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원정 주중 3연전, 5일부터 삼성라이온즈와 홈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이 지난달 2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시즌 1차전에서 승리한 뒤 선수들을 맞이하고 있다.

하다. KIA는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이 2.66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낮았다. 양현종(5.1이닝 1실점)과 제임스네일(6이닝 1실점), 윤영철(5이닝 무실점) 등 선발 자원들이 호투하며 승리의 발판을 닦았다.

또 광도규(3경기 2이닝 무실점)와 장현식(3경기 2.1이닝 1실점 무자책점), 전상현(3경기 3이닝 무실점), 정해영(2경기 2이닝 무실점), 임기영(2경기 1.1이닝 무실점), 황동하(2경기 2.1이닝 무실점) 등 불펜 자원들도 힘을 보탤다.

야수진에서는 이우성과 박찬호가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우성은 지난주 6경기에서 타율 0.409(22타수 9안타)로 2타

점 6득점을 생산했고, 박찬호는 6경기에서 타율 0.375(24타수 9안타)로 4타점 3득점을 뽑아냈다. 최원준은 두 차례 결승타, 김선빈은 세 차례 득점권 기회를 모두 성공시키는 등 화력을 더했다.

●2~4일 KT위즈전(수원KT위즈파크)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했던 KT는 3월 여덟 경기에서 1승 7패(승률 0.125)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다. 특히 가장 최근인 한화와 원정 3연전에서 2-3, 5-8, 3-14로 싹쓸이 패배를 당하며 3연패에 빠졌다.

KT는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이 8.88에 달했다. 두 번째로 높은 삼성보다 2.17 높을 수 있다. 웨스 벤자민(2경기 8이닝 15

실점)을 시작으로 고영표(4이닝 9실점), 원상현(3이닝 3실점), 엄상백(3이닝 4실점)까지 선발 투수들이 무너진 탓이 컸다. 윌리엄 쿠에바스가 유일하게 7이닝 2실점으로 제 몫을 했다.

타선은 화력이 뜨거웠다.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홈런 8개를 때려냈고 팀 타율도 0.288로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전성호와 배정대가 6경기에서 각각 타율 0.500(26타수 13안타)과 0.400(25타수 10안타)로 7타점과 10득점을 합작했다.

KIA와 KT는 각각 1차전 선발로 양현종과 고영표를 예고했다. 양현종은 롯데와 3차전이 우천 취소돼 선발 로테이션이

밀리며 이번 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등판하게 됐다. 양현종은 올시즌 한 차례 등판해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1.69(5.1이닝 1실점)를, 고영표는 한 경기 등판서 1패 평균자책점 20.25(4이닝 9실점)를 각각 기록했다.

●5~7일 삼성라이온즈전(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지난해 8위에 머물렀던 삼성은 여덟 경기에서 2승 1무 5패(승률 0.286)로 3위를 8위로 마무리했다. 특히 최근 4연패에 빠지는 등 지난주 1무 5패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

삼성에는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이 6.71로 KT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백정현(8.1이닝 5실점)부터 이승민(4이닝 6실점), 코너 시볼드(5이닝 5실점), 데니 레예스(2.2이닝 6실점)까지 선발진이 대체로 좋지 못했고 마무리 오승환이 세 차례 등판에서 모두 실점에 2패를 안는 등 3.2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다.

타선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주 팀 타율이 10개 구단 중 가장 낮은 0.183에 그치며 두 번째 낮은 롯데보다도 6푼6리 낮았다. OPS(출루율+장타율) 역시 0.540으로 가장 저조했다. 데이비드 맥키년이 유일하게 타율 0.333(24타수 8안타)으로 3할을 넘겼으나 아내의 출산으로 휴가를 떠났다.

KIA는 우천 변수가 없다면 로테이션상 크로우와 윤영철, 양현종이 삼성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 첫 경기에서의 기선제압이 중요한데 크로우의 어깨가 무겁다. 크로우는 올해 두 차례 등판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지만 모두 5실점(9자책점)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확실한 위력을 선보여야 하는 시점이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동강대 야구·축구, U리그 왕중왕전·승격 시동

야구, 4일 송원대와 개막전
축구, 5일 남부대와 첫 경기

동강대 야구와 축구가 올시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U리그 왕중왕전과 승격을 향해 시동을 건다.

홍현우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 야구부는 오는 4일 오전 11시30분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송원대와 U리그 E조 개막전을 갖는다.

동강대는 송원대를 시작으로 목포과학대, 세한대, 원광대, 조선이공대, 정운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홍익대 등 9개 팀과 조별 예선을 갖고 왕중왕전 진출을 노린다.

동강대 야구부는 지난해 열린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투수 박지호가 두산베어스에 지명 받아 2021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매년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하고 있다.

또 지난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한화이글스주최의 고교·대학 올스타전에는 김주찬이 대학 올스타로 뽑혀 실력을 뽐냈다.

홍현우 야구부 감독은 "동강대 야구부는 꾸준한 성적으로 지난해 졸업생 17명이 4년제 편입과 두산과 삼성(불펜포수) 등 프로 진출까지 전원이 진로를 확정했다"며 "올시즌에도 균형된 투타와 파이팅

을 무기로 팀 성적과 선수 개인 실력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종우 감독이 지휘하는 동강대 축구부는 U리그1 승격을 위해 그라운드를 누빈다.

동강대 축구부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장성 엘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U리그28 권역 남부대와 개막 경기를 갖는다.

동강대는 원광대, 전남과학대, 남부대, 초당대, 동신대, 조선이공대와 U리그2 경기를 갖고 조1위에 주어지는 1부리그 승격에 도전한다.

축구 U리그는 지난해부터 전국 84개 팀이 10개 권역으로 나눠 1·2부리그 승강제를 펼치고 있다.

2010년 창단한 동강대 축구부는 지난해 김민재를 비롯해 국가대표 대학 선발 팀으로부터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아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했고 광주FC를 비롯해 전주시민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등 성인 무대 진출의 성과를 거뒀다.

임종우 축구부 감독은 "시즌 초반에는 팀 특성상 1·2학년 선수들 간 호흡 등 조적력 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8월 추계대학축구대회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동한 기자

광주 여중·여고생 역사들, 춘계역도대회서 우수 성적

이다은·이유혜 각 3관왕

광주 여학생 역사들이 제35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대회에서 금빛 바벨을 들어올리는 등 우수 성적을 거뒀다.

광주체육중 여자역도 선수단은 지난달 28~30일 강원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중부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다은(3년)이 여중부 81kg급에서 인상 60kg, 용상 75kg, 합계 135kg을 들어 3관왕을 차지했다.

김효민(3년)은 여중부 81kg이상급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김효민은 인상 61kg 2위, 용상 73kg 2위, 합계 134kg 2위를 기록했다.

박보빈(3년)은 여중부 59kg급에서 인



상 50kg으로 동메달을 따낸 뒤 용상에선 60kg으로 4위에 그쳤으나 합계에서 110kg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에라 광주체육중 역도 지도자는 "광주 초등학교에 역도를 육성하는 학교가 없어 선수 육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선수를 발굴, 영입해 훈

련시키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수들이 동계훈련에 매진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광고 여자역도 선수단은 지난달 26~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에서 금메달 3개를 수확했다.

이유혜(3년·사진)가 여고부 76kg급에서 인상 80kg 1위, 용상 100kg 1위, 합계 180kg 1위를 기록,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박경열 정광고 역도부 감독은 "훈련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손원진 코치의 지도에 잘 따라준 게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며 "다음 대회인 전국역도선수권에서도 선수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파리 올림픽 도전’ 황선홍호, 이천서 마지막 담금질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티켓을 노리고 있는 황선홍호가 국내파 위주로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23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은 1일 오후 경기 이전시종합운동장에 소집돼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소집 훈련은 K리그에서 활약 중인 18명이 참가하며 김민우와 김

지수, 배준호, 양현준, 정상빈 등 해외파의 합류 시점은 미정이다.

황 감독은 지난달 29일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겸 2024 AFC(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에 출전할 올림픽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소집 명단에는 광주FC 소속인 엄지성과 변준수를 비롯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

임에 출전했던 안재준과 황재원, 김정훈 등이 발탁됐다.

올림픽 대표팀은 3일까지 소집 훈련을 진행한 후 UAE 두바이로 장소를 옮겨 현지 적응 훈련을 진행한다. 이어 10일부터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해 대회 출전을 준비한다. 올림픽 대표팀은 조별리그 B조에 편성돼 17일 UAE와 1차전을 시작으로 19일 중국과 2차전, 22일 일본과 3차전을 치른다.

한규빈 기자